



리코 디지털 인쇄기와 하이델베르크 솔루션의 만남 합리적인 가격에 오프셋인쇄 품질 구현

(주)리코코리아(대표이사 사카이 하루히사)와 한국하이델베르크(주)(대표이사 김병식)가 지난 8월 28일 서초동 리코코리아 본사에서 ‘리코 디지털 인쇄기와 하이델베르크 솔루션의 만남’이란 주제로 공동행사를 개최했다. 인쇄 산업 분야에서 활발한 협력관계를 이루고 있는 하이델베르크와 리코는 이날 행사에서 양사의 제품과 솔루션을 소개하고, 리코의 차세대 디지털 인쇄기인 ‘리코 프로 C751EX’가 하이델베르크의 ‘프리넥 워크플로’를 통해 어떻게 오프셋인쇄 품질을 구현하는지 직접 시연을 통해 선보였다.

자료제공 | 리코코리아

이 행사에서 리코코리아의 이채욱 부사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디지털 인쇄기인 리코 프로 C751EX가 하이델베르크의 솔루션을 통해 오프셋인쇄 시장에 본격 진입하게 됐다”며 “더욱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으로 우수한 품질의 오프셋인쇄를 구현하고 향후에도 다품종소량 트렌드에 맞는 프린팅솔루션 전문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다”고 밝혔다.

새로운 형태의 오프셋인쇄 구현방법 제시

리코 프로 C751EX는 최상위 모델에 버금가는 고화질과 다양한 용지 지원으로 주문형 인쇄에 필요한 다양성을 충족시킨다. 1200dpi×4800dpi의 고화질, 다양하고 폭넓은 용지 지원, 다양한 옵션을 제공함으로써 높은 생산성도 실현했다. 특히 정밀한 표현을 위해 혁신적인 VCSEL(VERTICAL CAVITY SURFACE EMITTING

Laser) 기술을 적용해 전문가 수준의 결과물을 출력할 수 있으며, 문자나 세밀한 선을 보다 선명하게 하고, 이미지를 보다 사실적으로 재현해내는 것을 통해 높은 이미지 품질을 요구하는 고객을 만족시킨다. 장시간 출력에도 인쇄품질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최적의 타이밍에 토너를 현상 유닛에 보급함으로써 대량 출력 시에도 페이지의 얼룩을 줄여준다. 높은 정밀도의 제어기술로 색상편차를 감소시키며 최신 컬러 PXP 토너에 의한 고화질을 실현했고, 오일리스 기술을 장착함으로써 수성 펜이나 연필 등의 필기도 가능하다.

디지털 너머 오프셋 분야까지 시장 확대

리코 프로 C751EX는 연속 인쇄 속도는 최대 75 페이지/분의 고속 출력이 가능한 동시에 출력 중 기기를 멈추지 않고 토너를 보급할 수 있

며, 페토너통 교환도 가능하다. 최대 7700매의 대량급지가 가능하며, 급지 중에 트레이의 용지가 떨어졌을 때도 동일 종류의 동일 크기 종이 다른 트레이에 있으면 자동으로 해당 트레이에서 급지를 이어받기 때문에 연속으로 출력할 수 있는 등 생산성을 극대화했다. 기기가 다운됐을 때는 고객센터 엔지니어를 통해 유닛 단위의 착탈이 가능해 다운타임을 큰 폭으로 줄였고 주문형 인쇄에 적합하다.🔄

